

지구온난화 본격화 “멀지 않았다”

온실가스 배출속도 과거보다 30배 빨라 ... 높아진 기온 온난화 가속화

현재 지구촌의 온실가스 배출속도가 과거 한때 극심한 온난화를 야기한 시기보다 30배나 빠르며, 지구 온난화가 조만간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.

미국 캘리포니아대 산타크루즈 캠퍼스의 제임스 자코스 교수 연구팀은 약 5500만년전의 지구 온난화로 널리 알려진 <Palaeocene-Eocene Thermal Maximum.PETM>을 연구한 결과 해저층을 조사해 당시 1만년 동안 4조5000억톤의 탄소가 대기에 배출돼 지구 온도가 5℃ 올라갔다고 밝히고, 최근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지속 되면 향후 300년이 지나면 당시와 똑같은 분량의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.

연구팀은 높아진 기온은 해양의 뒤섞임 속도를 늦추고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을 저하시켜 결국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잔류시켜 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고 설명했다.

자코스 교수는 “과거 기후변화 기록들은 기후변화가 천천히 진행되다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”며 “조만간 지구 온난화 현상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”고 우려했다.

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과학진흥협회(AAAS) 연례총회에 제출했다. (서울=연합뉴스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2/21>